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8월 30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0장 22-26절

설교제목 : “구별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19장과 20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9장과 20장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과 20장의 핵심은 거룩입니다.(레19:2)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결혼입니다. 구약의 선지서가 모두 17권인데 선지서에서 언약을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신혼의 사랑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입니다.(살전4:3)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룩입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의 백성됨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거룩으로 증명합니다.(마7:21)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자신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거룩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결론짓습니다.(22절)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9장과 20장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의 삶입니다. 십계명의 삶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19장과 20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19장과 20장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규범은 매우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19장과 20장이 다루는 이웃사랑은 일상 속에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로 나타납니다.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섬김과 배려와 긍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22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18:5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18:5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본문에서 ‘살다’로 번역된 하야는 단순히 ‘살다’, ‘거주하다’는 뜻을 지니는 ‘야와브’ 동사와 달리 생명을 가지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날을 장구하게 하고,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고 합니다.(신6:2-3) 하나님의 말씀과 같등없는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식을 얻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풍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23절) 세상을 본받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교회와 세상과 혼합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섞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하

나눔은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별하라고 하십니다.(25절) 우리는 부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고전3:16-1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전인 우리 자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봉사자입니다.(참고 창2:15/민3:7-8) 오늘날 제사장된 우리는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24절, 26절)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이란 단어가 카도쉬입니다. 문자적으로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사실 거룩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되고, 각 용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령, 용례에 따라 흠없는 뜻을 가집니다. 혹은 용례에 따라 온전히 헌신된이란 뜻을 가집니다. 더불어 용례에 따라 구별된다는 뜻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26절 본문에서 여호와가 거룩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벰전2:9을 봅시다. **벰전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도 거룩해서 즉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나의 이름이 세상에서 찬송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했다는 것은 존재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19:2)
- 2) 거룩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20:22)
- 3)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20:22)
- 4)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벰전2:9)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는 이전에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